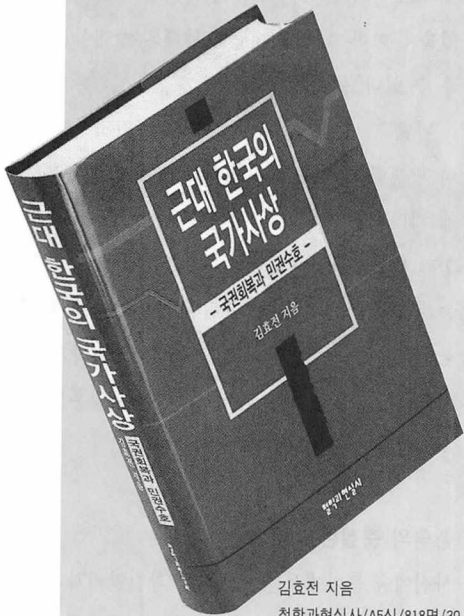


국가사상 형성에 관한 자료 집대성 한국근대 헌법사 공백 메운 역저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김효전 지음
철학과현실사/A5신/818면/30,000원

새천년을 맞이해 지난 1세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두툽한 저서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기쁨이다. 우리에게 지난 1세기는 혼돈과 좌절, 그리고 극복의 시기였다.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와 식민지로의 전락, 국권회복에 이은 남북분단은 우리의 삶을 옥죄었다. 이제는 분단이 아닌 통합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날을 되새겨 다시는 그 길을 거듭하지 않아야 한다.

법학계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이제 김효전 교수의 저서를 받아보니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자위한다. 저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외세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기록을 정리”해 공개했다. 그는 외국헌법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우리 헌법학의 뿌리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 일찍부터 이 작업에 착수해 1996년에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수용》(철학과현실사)을 펴냈으며, 이번에 그 ‘자매편’에 해당하는 이 책을 발간했다. 이 두 저서로 근 1세기에 이르는 우리 헌법학계의 큰 공백이 일단 채워졌다.

이 책은 제1편 국가와 헌법, 제2편 국가사상의

발전으로 나뉘며, 각각 4편과 6편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에서는 근대국가의 성립과 좌절, 국가이론의 초기수용, 국가학의 교육, 권리사상의 발전을 하나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제2편에서는 학술사적 입장에서 국가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저서들을 모본(母本)이 되는 일본과 서양의 저서와 저자, 그리고 주변적 사실과 함께 소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저자가 그동안 조사한 국가사상 관련문헌 90여종을 해제를 곁들여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국가사상과 관련되는 자료를 신문자료, 학회지, 교과서 등 어느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섭렵했다. 나아가 일본과 서구의 문헌을 비교, 연구지평을 한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초월해 세계사적으로 넓혔다. 이는 저자의 박학과 성실함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기조는 앞의 저서와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처음 발표된 지 10여년이 지난 글의 경우는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발표 이후의 연구성과를 거의 다 포함시켰다. 이 역시 저자의 학문적 성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앞의 저서를 “하나의 자료집으로, 징검다리”로 비정(批正)하고 있으며, 이 책도 마찬가지로 평자는 이 저서를 징검다리가 아니라 한국 근대헌법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원석(原石)으로 가득 찬 보물창고”로 비유하고 싶다. 한국근대법사, 특히 헌법을 비롯한 공법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료에 비애를 통감한다. 원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주위담기에는 역량이나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니 제대로 자료조사를 하지 않은 채 눈에 띄고 구미에 당기는 것 몇몇을 얻어 불량품을 양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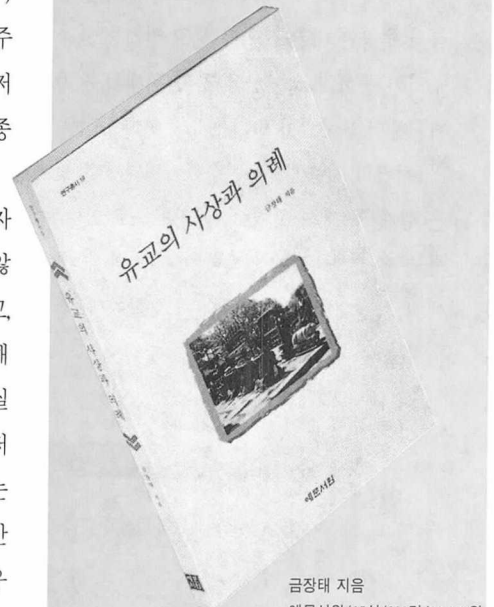
저자는 10년 이상의 공력을 들여 보물창고를 만들었다. 이제 그 보물을 찾아 꿰어 아름다운 걸작을 만드는 것은 평자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남아 있다. 학문은 한 걸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공식

서울대 법과대 교수. 저서 《한말법령체계분석》 《통감부법령체계분석》, 논문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외.

유교의 윤곽 간명하게 정리해 친절한 설명과 요약 돋보여

《유교의 사상과 의례》



김장대 지음
예문서원/A5신/296면/110,000원

유교에 관한 논의를 접할 때 늘 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를 너무 낮게 여긴다는 점이다. 유교는 우리의 삶과 떼어 수 없이 밀착돼 있었으므로 유교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가르침은 늘 들어왔던 것으로 상투적이고 진부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유교는 우리의 삶처럼 너무 가깝게 있다고 여기기에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애증의 대상이 된다. 근대화의 장애물도 유교고, 자본주의화의 성공요인도 유교다. 언젠가는 근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유교 전통의 덕택이라고 했다가, 또 번적이 나면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목청을 높여낸다. 뭐든지 유교라고 하기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유교다.

가끔 구미인의 유교 연구서를 읽으면서 신선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상투적 분위기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 대한 것은 모두 뻔한 모양이라고 체념하고 있다가 유교를 새롭게 보는 그들의 관점에 매혹되는 것이다. 유교 전통에 낯선 구미인들은 유교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질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교가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철저히 분석된다. 그 과정을 지켜

보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구태의연하게 유교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난해하고 읽기 힘든 다른 유교 연구서와는 달리 금강태 교수의 책은 평이하게 씌어져 있어서 술술 읽힌다. 뻔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지 한문에 토만 달아 놓은 듯한 글이 그의 책에는 거의 없다. 내용도 주로 유교경전이나 유학자의 사상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거나 학계의 성과를 요령 있게 요약해주는 것이어서 이해가 쉽다. 유교를 너무 낮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금교수의 책은 신선하다.

이 책에도 금교수의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유교사상과 유교의례의 두 부분으로 나눠 유교를 전반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비교적 쉽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유교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사상 부분은 유교적 사유의 일반적 특징을 거론하고, 천·상제 사상과 인·애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자의 가르침과 유교경전 및 주요 유교문헌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 유교의례 부분은 가문·학문·지역공동체와 의례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관혼상제 특히 제사 의례의 중요성을 거론한다. 그리고 조선 예학의 전개과정과 주요 성격을 솜씨 있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유교사상과 의례부분의 사이에는 유교와 무속을 사상과 의례 양면에서 비교하면서 두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책은 유교의 대체적 윤곽을 간명하게 살펴 보는데 쓸모 있는 책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조선 예학에 관한 정리는 평이하게 설명하는 저자의 장점이 잘 나타나 있어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 책이 이미 썼던 원고를 모아 재배치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각 부분간의 유기적 연관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은 순서대로 읽지 말고 마음 가는대로 뽑아 읽어도 좋을 듯 싶다. 이 책은 요즘 정력적으로 많은 연구서를 내놓고 있는 유교학자가 일반 교양인을 위해 마련한 유교입문서다.

장석만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저서 《종교 다시 읽기》(공저), 《한국 종교문화사 강의》(공저) 외.

서평

문화비평의 주요성과 망라한 엔솔로지 넓어진 비평영역과 다양해진 시각 반영

《문화읽기 : 뼈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



고길술의 저음
현실문화연구/A5변형/520면/15,000원

이 책은 90년대 후반 이후 문화에 관한 글쓰기의 성과들을 묶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95년 봄부터 2000년 봄 사이에 씌어진 글들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90년대 후반기 문화비평의 주요성과들을 망라한 엔솔로지인 셈이며 그런 의미에서 같은 출판사에서 93년 말에 나온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이 책이 포괄하고 있는 90년대 후반이라는 연대기는 문화연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진을 남기고 있던 80년대의 페리다임과 거기에 근거한 활동들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되면서 그야말로 '90년대적'인 화두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시기라는 점이 그 하나다. 이미 동구권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다양한 포스트담론들이 뜨겁게 지면을 달구던 그 시기에 대중을 만났던 80년대의 저항문화는 한동안 격렬한 불꽃을 피워 올렸지만 그것이 80년대의 마지막 여진이었던 셈이다.

그런 가운데 90년대 초반, 문화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고 그 속에서 이뤄진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중문화의 재발견'이었다.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그런 인식의 변화를 반영

한다. 이후 대중문화는 문화연구와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다. 80년대의 여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새로운 비평가 집단이 속속 등장했고 이들은 80년대의 부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전 세대의 비평가들과는 여러모로 구분되는 문화 글쓰기를 감행했다. 이들에 의해 문화비평의 영역은 넓어졌고 문화를 보는 시각은 다양해졌으며 문화읽기는 대단히 진지하면서도 매혹적인 주제가 됐다. 그렇게 탈냉전 시대의 핵심적 화두로 등장한 '문화'를 진지하고도 매혹적인 방식으로 읽어내는 새로운 문화연구와 비평의 핵심 성과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 이 책이다.

대부분 발표 당시 읽었던 글들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일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문화비평의 대상 영역이 놀랄 만큼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디즈니의 동화적 세계, 뮤직비디오와 영화, 포르노그래피 같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텍스트만이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은 식민과 냉전의 기억들,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문화들, 옷로비 사건, 그리고 청(소)년의 하위문화적 몸짓들이 진지한 문화적 사고의 텍스트가 된다. 필자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며, 대부분의 글에서 각기 접근 방식이나 사고 전개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의 문화 현상을 읽어내는 필자들의 시선은 놀랍도록 집요하고 분석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90년대 문화연구가 도달한 수준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90년대 후반 문화연구와 비평의 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하다.

8개로 나뉜 장들은 문화연구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지만 각 장을 구성하는 글들은 각 장의 제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 각기 이 책 정도의 중량을 담은 책들이 따로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의미의 문화연구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 책은 바로 그것을 알리는 기념비적 산물로 기록될 것이다.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서 《대중문화의 이해》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외.